



명동 도심속 '할로윈 퍼레이드'  
윈'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시민들이 4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진행된 '도심에서 만나는 에버랜드 해피 할로윈'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 손진영 기자 son@

## ‘교통약자·따릉이’ 내비게이션 개발

### 서울시-네이버랩스

교통약자 대중교통길 서비스

서울시는 네이버랩스와 '교통약자·따릉이 길 찾기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비스에 교통약자 맞춤형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정보를 포함한다. 우선 시는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를 개발한다.

시는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위치 정보, 저상버스 정보, 버스 혼잡도 정보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랩스는 이를 활용해 지하철 실내 지도를 만들고, 장애 없는 경로 안내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제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것처럼 교통약자도 지하철 역사 실내에서 보행을 위한 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보를 접목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단거리 이동은 도보·공공자전거 단독 경로를, 중거리는 공공자전거와 타 수단을 통합한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와 네이버랩스는 지난 달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구 고령화, 생활방식의 다각화 등으로 시민들의 이동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미래 서울시민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 “맥주가 1000원... 건어물 맥주축제 오세요”

중구, 7일 건어물맥주축제 개최

서울 중구는 7일 오후 3시부터 중부건어물시장에서 '2018 건어물맥주축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국내 최대 건어물 전문시장인 중부건어물시장과 건어물 상품을 알리고, 새로운 비전이 담긴 시장의 변화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신중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신중부·중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한다.

이날 시장에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긴 맥주광장이 펼쳐진다. 축제 슬로건은 '건어물 씹으며 스트레스 날리고'이다.

축제 참가자들은 맥주(1000원)와 101가지의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수제맥주와 세계맥주를 준비해 맥주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과 이벤트도 마련됐다. 인기가수와 팝가수 그룹의 축하공연을 포함, 30분 간격으로 거리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 밤 10시에는 DJ 파티가 열린다. DJ들은 현장에서 받은 신청곡과 EDM, 힙합 음악 등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범민 작家的 그라피티 퍼포먼스, 맥주컵 빨리 쌓기, 건어물 빨리 자르기, 눈 가리고 건어물 맞추기 등의 관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부건어물시장 고 유 브랜드인 '아라장' 상품전시회와 건어물 기획전도 마련됐다.

공연 개

막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중부건어물시장을 상징하는 물고기 유등을 점등해 축제 성공을 기원한다.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건어물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중구 관계자는 "당일 오후부터 비 예보가 있지만, 시장 천장에 아케이드가 구비되어 있어 축제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9월 이틀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건어물맥주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바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폭염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겨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건어물맥주축제를 상인이 주도하는 지역 명물축제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 근로시간 단축·교통체증 여건 등 반영

# 서울시,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비

서울시, 전문가 등 47명 TF 구성  
합리적 원가산정 기준 마련 일환  
품셈 19건 폐지·15건 신규 개발

서울시는 자체 공사원가 산정기준인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때 소요되는 인력,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공사원가산정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그동안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1549개의 사업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506억원의 공사원가를 절감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을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형품셈 정비로 공사 시공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47명으로 만·관 합동 TF를 꾸려 서울형품셈을 재검증했다.

시는 총 12회의 평가회의, 원가분석자 문회의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시는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을 보완하고, 19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개발한다.

시는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 등 총 23건을 보완한다.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한 19건은 폐지한다.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 15건은 신규 개발한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제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밀라노서 인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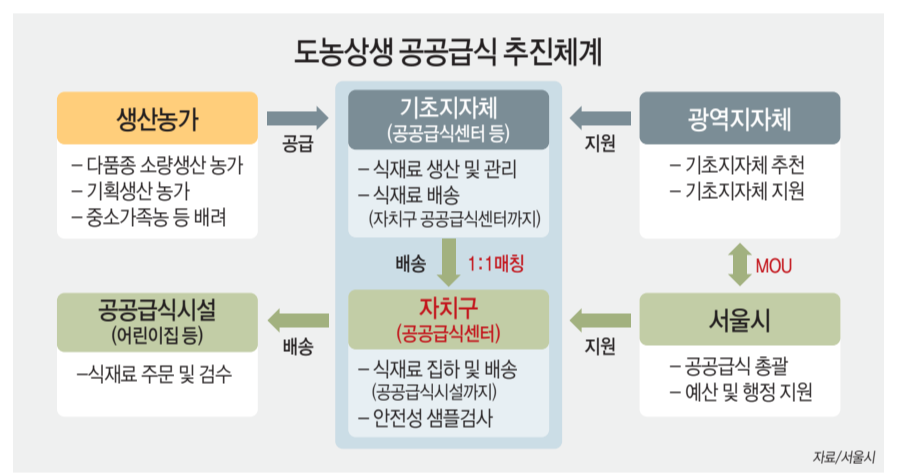
서울시, 도농 직거래 유통구조 구축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 '특별상'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먹거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밀라노 협약상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서울의 공공급식시설에 직거래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존에 복잡했던 유통구조를 3단계(산지 지자체→자치구 공공급식센터→공공급식시설)로 개선했다.

밀라노협약상은 파리, 런던, 뉴욕 등 62개국 163개 도시가 참여하는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에 따라 먹거리정책을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는 상으로 지난 2016년 신설됐다. 최고점수상, 환경도전상, 특별상 등 8개 분야를 시상한다.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은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에서 상을 받



는다. 시는 급식 식재료에 공격조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도시-농촌 간 직거래 선순환 유통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4일 오후 4시(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진행되는 '제4회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연례회의'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이 대리 참석해 수상소감을 밝히고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 이날 시상식

에는 160여개 협약도시 대표단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의 도시에 우리가 축적한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정 기자

## 사당역~과천대로 2.8km 중앙버스차로 7일 개통

서울시는 오는 7일 오전 4시부터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사당역(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까지 2.8km를 연장했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09년 11월 개통한 동작대로 이수교차로부터 방배경찰서 구간 2.7km와 함께 과천대로 남태령고개까지 총 5.5km가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도심 방면 버스 평균속도가 약 35% 향상된다.

동작대로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까지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구간에는 도심 방향 2곳(전원마을 앞, 사당역 교차로)과 경기도 방향 2곳(사당역 교차로, 사당IC 앞) 등 중앙버스정류소 4곳이 신설된다.

/ 김현정 기자

##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어르신 웨딩쇼

종로구, 부부 7쌍 등 21명 참가

서울 종로구는 5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꽃피는 웨딩쇼'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어르신 꽃피는 웨딩쇼'는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의 아쉬움을 달래고 웨딩드레스에 대한 꿈을 실현, 노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균관컨벤션 웨딩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행사에는 부부 7커플, 홀몸 어르신 7명(여성 6명, 남성 1명) 등 21명이 참가해 멋진 신랑, 신부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종로구효행본부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가 열리는 성균관컨벤션 웨딩홀은 장소와 턱시도, 웨딩드레스를



어르신 꽃피는 웨딩쇼 모습. / 종로구청

후원했다. 메이크업과 헤어는 종로구 내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이·미용 자원봉사자들이 맡는다.

이날 행사는 ▲식당 행진 및 사진촬영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종로구효행본부 이사들이 홀몸 어르신을 위해 신랑 또는 신부 역할을 대신해 어르신과 함께 입장한다. 어르신들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을 행진한다.

/ 김현정 기자